Market Index / 14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 1924.96	▼ 690.57	▼ 25.29
-15.46	-0.96	-0.49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1USD	1249.99	1207.01	1EUR	1353.99	1301.17
100￥	1169.58	1129.36	1CNY	181.41	164.15

코로나19 시국서 숨통 트인 선원 수급

3월 기준 제주체류 취업비자받은 외국인 1397명
수협 "선주들이 선원 요청하면 70~80% 가량 충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20t 이상 어선은 319척이다. 일평균 근해연승 110여척이 제주도 동부해역 및 남부해역에 출어해 조업하고 있다.

이들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은 E-10(외국인 선원 취업비자)을 받은 외국인으로, 지난 3월말 현재 E-10을 받은 제주체류 외국인 선원은 1397명이다.

이중(E-10-2)비자는 20t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어선원(E-10비자)들은 사증 갱신을 통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도내 선주들이 지역수협으로 외국인 선원 신청을 하면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추천을 하고 이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받고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를 통해 송출국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선원들을 데려오고 있다.

서귀포시수협은 이달 자회사인 제주교역을 통해 외국인 선원 22명을 데리고 왔다.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격리중인 이들은 다음달부터 연승어선에 승선, 조업에 나서게 된다.

범성호(29t)선주 김창현(52)씨는 "다음달부터 동지나해(동중국해)에 갈치 조업을 나가게 되는데 외국인 선원 2명 채용으로 선원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며 "승선·조업 교육과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을 이수한 선원들이기 때문에 현지 적응이 빨라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주시수협도 이달 현재 연안어선에 필요한 외국인 선원 70~80명을 요청했으며, 현재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정원이 정해지는데 선원노조와 협상을 통해 인원을 결정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까지 다 포함시켜 쿼터를 산정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인 경우 필요 인원의 70~80%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어 선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교역은 외국인선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2월 서귀포수협 대의원총회에서 업체 설립을 결정하면서 만들어진 자회사다. 외국인선원을 채용해도 갈치잡이 등 장기간 조업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6개월 내 그만두는 선원이 30% 정도에 달하면서 인력난을 겪는 어가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한진칼,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제주정석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예상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주주인 한진칼도 자금을 조달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한진칼의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한진칼의 자금 조달 방식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칼은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 측은 "대한항공 보유 지분 가치를 유지하고 대한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주주인 한진칼이 선제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 진에어, 정석기업,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이들 회사의 지분을 담보로 하거나 정석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은 전날 이사회에서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 우선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전날 대한항공이 총 발행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진칼의 자금 조달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현재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유상증자에 주주배정 물량 이상을 청약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칼은 현재 대한항공의 지분을 보통주 기준 29.96%(우선주 포함 29.62%)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이 주주배정 물량만 소화하려면 2400억원의 자금만 투입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유상증자 후 한진칼의 대한항공 보유 지분이 종전의 29.96%에서 27.05%로 2.91%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종전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600억원을 더 투입, 총 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보유 자산 매각과 담보부 차입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연결 기준 한진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412억원에 불과하다.

한진칼 측은 "매각과 차입 방안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별도의 이사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aT 제주본부, 오는 21일까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2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박람회 개최가 유동적일 수 있으나, 하반기 정상 개최 일정에 맞춰 호주 멜버른(Fine Food Australia, 9월), 프랑스 파리(Sial Paris, 10월), 베트남 호치민(Foodexpo Vietnam, 11월) 등 총 8회 박람회의 통합 한국관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농림수산축산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수출업체로 최대 3개 박람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통합 한국관 내 1개 부스를 무상 지원받는다. 또한 신선농산물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운송통관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aT는 참가하지 않는 국제식품박람회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개별적 참가를 지원하는 '개별박람회' 참가업체도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사항은 aT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5)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비가 오려나' 14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의 추수를 앞둔 한 보리밭 위로 제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휴애리 매실 따기 이벤트 입장객 5kg 가져갈수 있어

휴애리는 오는 20일부터 입장객을 대상으로 무료 매실 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휴애리를 찾는 입장객은 무료로 매실(약 5kg)을 직접 따서 가져갈 수 있으며 이벤트는 매실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장갑과 봉투 등이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물먹이주기체험,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상설체험 프로그램과 갤러리 팡에서 열리는 사진전 등 입장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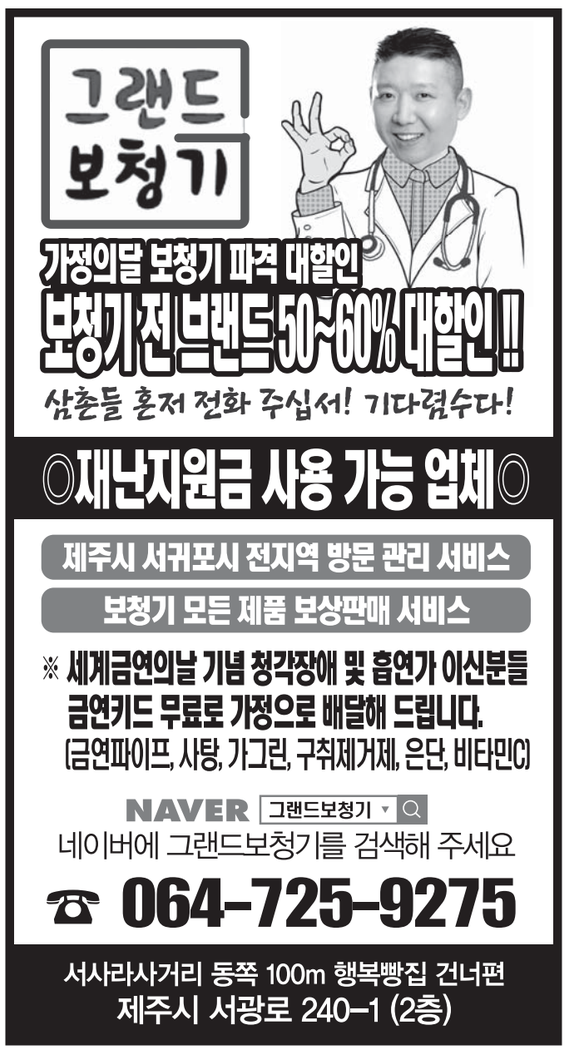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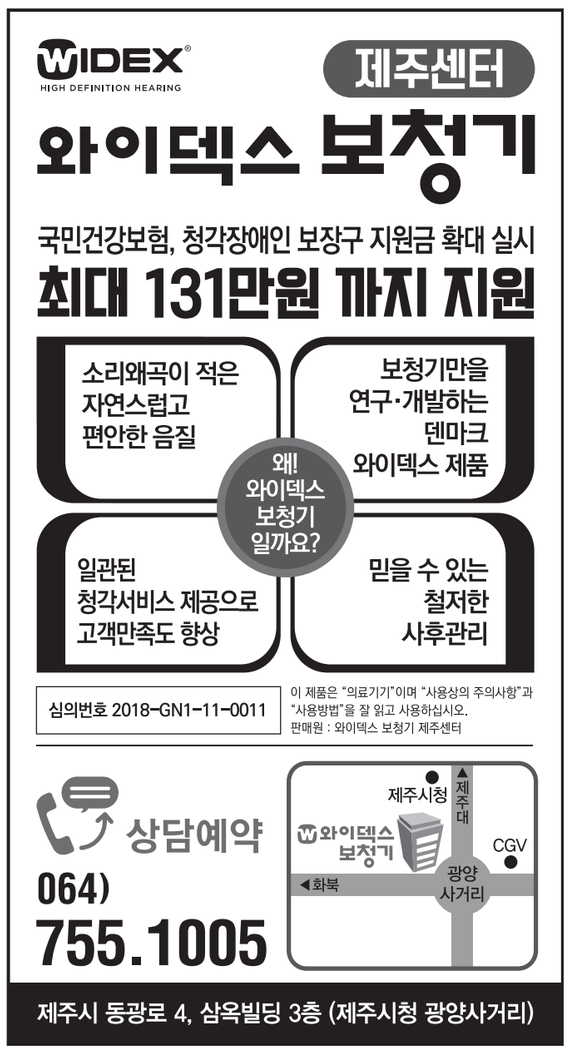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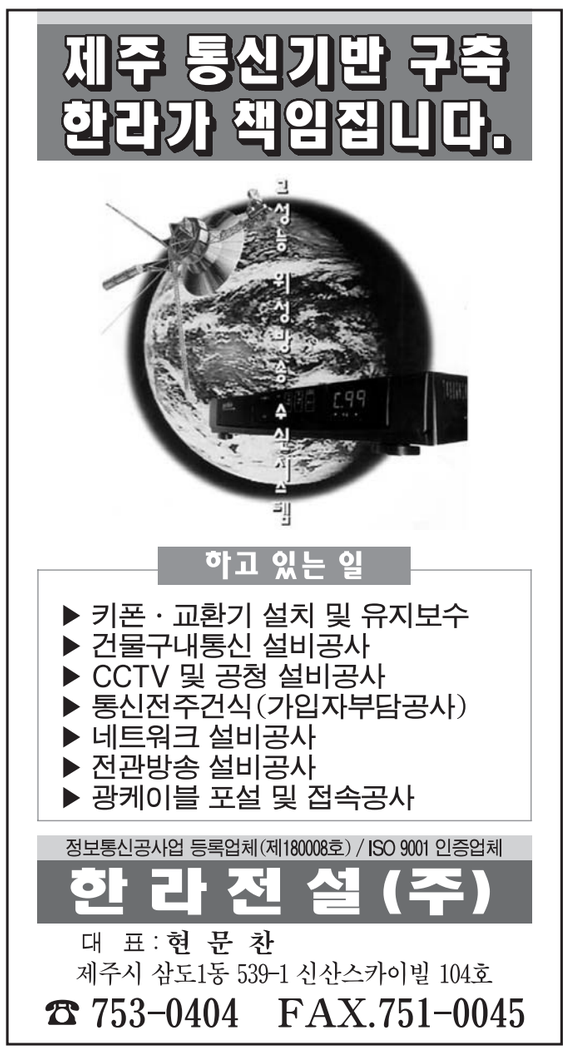
한편 현재 휴애리에서는 각양각색의 수국을 볼 수 있는 수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웨딩·우정스냅 등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됐다.

(주)한라산-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주)한라산(대표이사 현재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최희숙)는 지난 13일 (주)한라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재웅 대표이사와 최희숙 제주지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고 양 기관의 주요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협업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결연한 협약서를 작성했다. >>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향토기업의 우수한 제품 홍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한라산은 소주 대표 브랜드 '한라산21'의 보조상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학습병행 사업 홍보 문구를 넣어 참여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고용하면 도제식 현장훈련과 이를 보완하는 이론 중심의 현장외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대로기자